

광주·전남 공공기관 통폐합 年 100억 절감

전남관광은 전남개발공사로 흡수해 44억 절약 빛고을노인재단+광주복지재단 통합 3억 아껴

행자부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등 기능조정 등을 통해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 절감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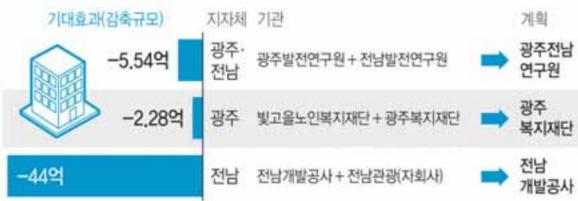
1차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은 전국 9개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기관 사이 중복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공개된 구조개혁방안을 보면 광주와 전남, 인천, 경기, 경북의 21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 사업본부가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사로 통폐합되

며 17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된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연간예산절감 5억 5400만원),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은 광주복지재단(2억2800만원)으로 통폐합된다. 또 전남관광(자회사)은 자회사인 전남개발공사로 흡수돼 4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또 광주도시공사와 광주도시철도, 김대중센터, 광주환경공단, 정부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그린카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경제고용진흥원,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지원센터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재배치 등 상호기능조정을 통해 연간 58억4300만원

광주·전남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



의 예산 절감에 나선다.

전남에서는 테크노파크와 전남개발공사, 생물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기관내 기능 조정으로 연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의 재정절감효과를 연간 202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이중 광주·전남에서만 절반이 넘는 112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각 자치단체는 올 하반기부터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행자부는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시·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방안을 이르면 9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학생들 '日 전쟁범죄국' 부활 반대

29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아베 전쟁범죄 추진규탄, 과거사 사죄 촉구' 대학생 시국 성명 발표 회견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와 서울대학생 겨레하나 소속 대학생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전국 대학생 600명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전쟁범죄국' 부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항의서한을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아베 전쟁범죄 추진규탄, 과거사 사죄 촉구' 대학생 시국 성명 발표 회견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와 서울대학생 겨레하나 소속 대학생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전국 대학생 600명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전쟁범죄국' 부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항의서한을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메르스 종식 ... 전남도, 체육으로 경기 활성화

전지훈련·체육대회 본격 유치·지원키로

전남도가 정부의 사실상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에 맞춰 운동선수 전지훈련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대대적으로 유치·지원하기로 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0개 종목, 3800개 팀, 연인원 74만명의 전지훈련과 전국 규모 200개 대회, 연인원 80만명을

유치해 1235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목표 수치가 불가피해지면서 전남도는 지난 5~7월 중단·연기했던 전지훈련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영광에서는 스포티움 경기장에서 8월 1

일까지 11일간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48회 대통령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스포티움 체육관에서는 8월 1~10일 2000여명이 참가하는 제70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가 열린다.

해남에서는 우슬체육관에서 600여명이 참가한 제26회 문체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가 지난 24일까지 5일간 열렸고, 2000여명이 참가하는 제34회 연합회

장기 전국 축구대회가 30일까지 3일간 계속된다.

또 전남 13개 시·군에 230개 전지훈련팀이 찾아 하게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적막감마저 들었던 경기시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전남도는 메르스 사태 이후 도내 각지에서 열리는 14개 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3개 생활체육대회, 3개 레저스포츠대회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초대원장 공모 7명 응모

8월중 임명, 9월 개원

오는 9월 통합 출범하는 광주·전남연구원 초대 원장 공개 모집에 7명이 응모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 공모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직 국책 연구원장 출신과 전남대 등 지역 대학교수 등 7명이 신청했다. 원장 선임은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 이사회 각 2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복수 추천한다.

이사회가 최종 1명을 결정할 뒤 시도

의회 공동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명한다.

8월 중 원장 임명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개원할 계획이지만 원장추천위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이사회는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 당연직 5명과 시도 단체인 5·18 광주·전남연구회 14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사장은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다.

연구원은 지난 1991년 7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1995년 6월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운영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초대 관장 나간채 교수 선임

나간채(67·전남대 명예교수) 광주연구소 이사장이 지난 5월 옛 가톨릭센터에 개관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초대 관장에 선임됐다.

나간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초대 관장은 "소중한 역사의 자산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으로 성심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나 관장은 1972년 공주사범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사회학 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전남대학교에서 33년간 사회학과 교



수로 재직하면서 5·18항쟁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2000년에 전남대 5·18연구소장을 맡으면서 더욱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을 해왔다. 특히 동아시아평화국제학술대회와 세계정치학회 20차 학술대회, 제9회 한국국제학술대회 등의 학술모임에서 5·18에 관한 논문을 연달아 발표하는 등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청년 창업, 대출보다 투자 환경 조성돼야"

미래부 이석준 차관

광주 창조경제 강연서 밝혀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차관은 29일 "청년창업자들이 초창기 위기에 쉽게 쓰러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출보다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 원정대' 강연에서 "과거 창업 투자에 대한 인식이 나 멘토가 거의 없던 시절 홀로 창업에 나선 도전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며 "다행인 것은 과거에 비해 멘토들이 많이 있고 투자와 정부의 창업 기반 지원이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것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스토랄 뻔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 차관 외에도 모바일 농·수·축산물 직거래서비스 업체

(주)부지런의 박동일 대표, 의료기기 벤처기업 힐세리온의 류정원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창업 초기에 겪은 실패담과 극복 과정을 이야기했다.

창조경제 원정대는 지난 28일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광주·전북(29일), 부산(30일), 충남(31일), 강원(8월 1일) 등 5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가 각 각 청년창업 계기와 위기 극복, 성공을 위한 특별한 요소, 청년창업을 앞으로 더 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주제로 강연과 토크쇼를 한다. 강연은 스타트업 대표들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운영되며 이 차관은 역시 휴가를 이용해 강연 일정을 소화한다. /박진표기자 lucky@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 최고의 마진
- ▶ 최소의 창업비용
-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

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육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